

파라미타 활동 입시에도 도움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등재 대상 21곳에 포함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활동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돼 공신력이 더욱 높아졌다. 불교계의 대표적인 청소년단체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스님)는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등재 청소년단체로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등 21곳의 청소년단체가 선정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외부기관이 주최한 체험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부활동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부가 제시한 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르면, ‘교육부와 교육부 직속기관, 시도교육청과 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이 주관한 행사, 청소년 단체 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봉사활동 등에 대해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만 기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15년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 가능한 청소년단체는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와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RCY),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흥사단 등 총 21곳이다. 이 가운데 불교계 청소년단체는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유일하다. 21개 청소년단



파라미타 언니들 뒀다...

지난 10일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 여자고등학교(교장 박현숙) 1학년 교실에 파라미타 2학년 언니들이 들어왔다. 신입생들에게 파라미타를 홍보하고 가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신청서를 나눠줬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사회 속에서 봉사하고 수련해야 할 불교적 실천덕목을 구현하는 청소년 단체이다.

체가 아닌 단체의 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하는 게 불가능하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학교생활기록부 등재 청소년단체 선정을 통해 파라미타 활동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제는 파라미타 활동이 입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파라미타 행사를 직접조사청소년적십자(RCY),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흥사단 등 총 21곳이다. 이 가운데 불교계 청소년단체는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유일하다. 21개 청소년단

하고서도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가능한 별도의 동아리 활동을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기 때문에 파라미타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파라미타는 ‘학교생활기록부 등재 청소년단체’ 선정을 통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월 이사회를 통해 ‘파라미타 활동 안 전관리 규정’을 제정했다.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등재 청소년 단체’ 선정에 필요한 요건이자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청소년 단체에

요청한 사안이다. 또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지도자 전문연수’에도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상임이사 범경스님은 “파라미타가 생활기록부 등재 청소년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파라미타 활동이 공신력을 더 얻게 됐고 활기도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면서 “해마다 재선정하는 만큼 준비를 제대로 해 파라미타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bulgyo.com

파라미타-불교신문 손 잡고 인도 빈민층 시력 찾아준다

세종-한인교류회 주관...국제광명활동 전개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본지와 함께 인류의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도에서 국제공익활동을 전개한다. 공익활동은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스님)와 불교신문(사장 영배스님)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세종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선보스님)와 사단법인 한-인교류회(회장 송기원)가 주관하며 안과 수술을 통해 아삼주 빈곤층 주민들의 시력을 찾아주는 국제광명나눔 활동으로 진행한다.

국제광명나눔 활동은 매일 생활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백내장 환자 7~8명, 선연인원 100여 명에게 시력을 찾아주는 의료나눔활동으로 2년 간 진행할 예정이다. 첫 활동은 지난 2월16일부터 28일까지 전개됐다. 인도 아삼주 시바사거에서 진행된 활동은 신청 접수된 환자 중 현지 의료진이 위급을 요하는 3명을 우선대상자로 진행했다. 환자들의 수술은 찰라포터수도의 사사방사스님의 축원을 시작으로 엠블런스



국제광명나눔은 2월14일부터 24일까지 첫 활동을 전개해 인도 아삼주 환자중 현지 의료진이 위급을 요하는 3명에게 안과 수술을 진행했다.

를 이용해 약 300km 떨어진 디부르거의 대학종합병원으로 이송해 정밀검사 후 한쪽 눈의 수술을 진행했다. 나머지 한쪽 눈은 6개월 후에 수술을 하고 완전한 시력을 회복한다. 국제광명나눔의 수술비용은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와 불교신문, 한-인교류회, 인도 아삼지역 NGO단체인 나부타인디아에서 모금한 후원금으로 지원한다. 세종파라미타

소년협회장 선보스님은 “인도 아삼지역은 물이 좋지 않아 눈과 관련된 질환을 앓는 환자가 많지만 가난으로 치료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거룩한 불사에 동참해 어둠속에 헤매는 중생들에게 광명의 빛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455801-04-330562 예금주 : 세종파라미타 이시영 총정지사장 isy@bulgyo.com

“소통 화합 위해 노력해 달라”

총무원장 자승스님
이완구 총리에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 자리에서 “늦게나마 총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활동해 오신만큼 앞으로 통합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취임사에서 사회개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하셨다. 종단에도 더 크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사람과의 만남을 중요시 여긴 주나라 주공의 고사를 인용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소통과 통합을 하려면 부지런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주나라 주공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주공의 ‘일목삼착(一沐三捉)’ 고사를 인용해 “일목삼착 일반삼도(一飯三吐)” 고사를 인용해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9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이완구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고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재호 기자

그 어떤 총리보다 열정과 노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소통과 화합이) 잘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국무총리는 “올해 대통령 집권 3년차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총리로 임명된 이유와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도 잘 알고 있다. 총무원장 스님의 말씀처럼 소통에 방점을 두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며 “국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잘 발전시켜서 정치권과 소통하고, 종교계를 비롯해 사회각계와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과의 소통에도 힘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완구 총리는 미국대사 피습과 관련해 “문병을 다녀왔는데 국민들이 많이 마음을 모아줘 정돈되어 가는 느낌이다. 3년 차 국정 동력을 만들어내느라 마음이 많이 바쁘다”며 불교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완구 총리는 종단에서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스님은 “(법남 기념관 건립사업은) 특혜가 아니라 피해 보상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역설했다. 염태규 기자 che11@bulgyo.com

종단협 ‘세계평화 기원대회 참여’ 결의

사무총장 월도스님 선출
실크로드 성지순례 실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 10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제51차 정기총회 및 불기2559(2015)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신임 종단협 사무총장에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스님을 선출했다. 또 불교지도자 성지순례, 2015년 봉축행사 봉행, 한반도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등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관련기사 3면

사무총장 임기를 마친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을 부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종단 대표 및 임원의 인



사에 따라 조계종 총무부장 지현스님을 상임 이사로, 미륵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묘각스님을 이사로 각각 변경했다. 이와 함께 종단협은 오는 6월27일부터 7월3일까지 우무무지, 둔황, 서안 등 중국 실크로드를 둘러보는 한국불교지도자 성지순례 실시하기로 했으며, 오는 5월15일부터 18일까지 봉행되는 한반도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에 종단협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제18차 한중일대회 일본대회 개최와 관련한 예비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사회에는 종단협 회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준관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 등 성원 35명 가운데 위임 포함 33명이 참석했다. 한편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스님)도 같은 날 제35차 정기총회를 열고 △6월8일~10일 용주사에서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10월 한일불교여성성교류대회 △방학기간을 이용한 한일 청소년 교류사업 등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염태규 기자 che11@bulgyo.com

■ 특별기획 / 광복 70년 '세계평화를 위한 간화선 무차대회' 별지 4개면 발행



가족을 위한 행복한 동행 111일 관음기도

올 한 해 우리 가족이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심 아래 가피 받기를 지심으로 기도합니다.

입재 2015년 3월 27일 (금) **회향** 2015년 7월 15일 (수)

기도시간 오후 2시 ~ 3시 30분

동참 가족 4인 동참 30만원 (가족 1분 추가당 10만원)

● 기도 동참하신 분께 동참가족의 이름이 새겨진 특별한 합장주를 선물로 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

문의_ 조계사 접수처 02-768-8500